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마 포 구 의 회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일본은 2023년 8월 24일 핵 오염수 1차 방류를 시작으로 10월 5일에 다시 2차 방류, 현재까지 약 15,600톤을 바다에 투기하였다. 그러나 매일 핵 오염수 100톤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 이를 모두 방류하는 데 3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처리를 거친다면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을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다. 이는 핵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 바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일본은 1972년 런던협약 및 1996년 런던의정서가 금지하고 있는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위반하였음에도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해양투기가 아니라는 궤변을 내놓으며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및 허위표시 건수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언제, 어떻게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학부모단체 및 환경단체는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리고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마포구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

하나. 국회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런던협약을 위반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

2023. 11.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